



CUM 순례단

연중 제20주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 38, 4~6. 8~10

화답송 시편 40(39), 2ㄱ~2. 2ㄷ~3, 4, 18 (©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1.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2.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3.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

을 신뢰하리라. ◎

4.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히브리서 12, 1~4

복음 환호송 요한 10, 27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루카 12, 4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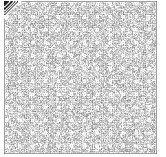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130(129), 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8월 15일(월) '성모 승천 대축일'

강론 및 전례는 5면에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입니다.



콩가루 집안



김재관
루도비코 신부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서는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서 늘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평화를 주시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셨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평화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은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용어로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멋대로여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없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협력 및 협조가 안 되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고 조용하니 마치 아주 평화로운 집안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콩가루 집안이 아닌 다른 콩가루 집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콩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콩이 가루로 갈려야 합니다. 아주 가는 가루로 부수어지고 갈리어져야만 콩가루가 됩니다. 그렇게 가루로 부수어지고 갈리어지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

는 의미로 콩가루가 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서로를 위해서, 곧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콩이 가루로 부수어지는 그런 희생을 하는 그런 콩가루 집안. 이런 가정은 분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머물러 있을 것이고 사랑이 활활 불타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을 지피러 오셨는데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으로 불을 지피 활활 타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따로 흩어져 제멋대로 살아가는 멍처지지 않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고소한 콩가루 향기가 나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에 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점은 나쁜 점이라며 빼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아들 셋 낳을 손금이라 해서
셋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딸만 둘 낳았습니다.
손금대로 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점은 아플 것 같아 안 빼기로 했습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지금 여기

BC부산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8.15(월)~16(화)
김재관 신부(청소년사목국 부국장)
8.17(수)~20(토)
윤성완 신부(남천성당 제2보좌)

문자참여 #2340

◆ 사랑이 있는 세상 ◆

월~목 12:15~14:00

8.16(화) 함께 하는 여정

(기초공동체 초대 토크 코너)

출연 : 중앙성당 Pr.다윗의 적루

◆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

8.19(금) 12:15~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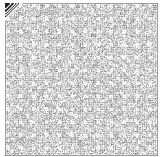
진행 : 이재석 신부(영성의 집 제2부원장)

출연 : 김상균 라우렌시오

◆ 성음악산책 ◆

8.21(일) 07:00~08:00

진행 : 윤용선 신부(용호성당 주임)



성모님의 아름다운 군대를 아시나요?

1921년 9월 7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 전야, 아일랜드 더블린시에 있는 빈첸시오 회관 마이어 하우스에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열망에 가득 찬 15명이 모였습니다. 마이클 토허 신부님과 프랭크 더프와 13명의 자매들이었지요.

그들은 첫 모임에서 중앙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을 모셨고 양옆에 꽃을 꽂은 화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촛대에 불을 밝힌 후, 다함께 무릎을 꿇어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와 묵주기도 5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작고 소박한 모임이 레지오 마리아의 첫 모임이었고 그들은 마리아의(Mariae) 첫 군대(Legio)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지녔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으로

이어졌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 고자 행했던 모든 활동들은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을 즈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레지오 마리아는 마침내 1956년 1월 3일 당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매(梅) 에드워드 신부님에 의해서 대신동 본당(현 서대신)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브레시디움을 창단 하면서 부산교구에도 씨앗이 뿌려 집니다. 이후 부산교구 마리아의(Mariae) 군대(Legio)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27,000명의 행동 단원과 18,000명의 협조 단원이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헌신하며 가톨릭 단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레지오 마리아가 부산교구에 도입된 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환갑(還甲)을 맞은 레지오 마리아가 다시금 새롭

게 각오를 다지며 거듭나려 합니다. 모든 단원들이 ‘한 번 더’ 사랑하고, ‘하나 더’ 늘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 더...’ 사업에 전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 선교, 교우 돌봄, 어려움을 겪는 자 돌봄, 본당 협조 등 다양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레지오 마리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신앙에 보다 매진하고자 하는 모든 분이 이 아름다운 여정의 길에 초대받고 계십니다. 모든 이의 어머니요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레지오 마리아는 두 팔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환영할 것이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모님의 군대로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각 성당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레지오 사무실(462-10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돕겠습니다.

■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반공의 국익

저는 30년 전 콩나물시루 같던 교실에서 ‘반공포스터’를 그려내 상을 받았던 입상자입니다. 늑대의 얼굴을 한 빨갱이를 때려잡는 ‘뚝이 장군’의 눈으로 그린 반공 포스터는 그야말로 두려움에 대한 컬트적 상상력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30년이 지난 지금 그 두려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 차별을 만들고 철조망을 세우고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끊임없이 쏟아내야 한다는 기저의 두려움을 통해 끊임없이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반공주의”의 칼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숯한 갈등과 완만한 해결의 방식은 여전히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닌 겁니다. ‘민주적’이라면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정상적 절차와 과정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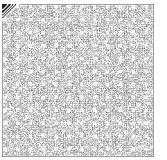
고, ‘공화적’이라면 ‘사적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반공과 국익” 말고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좌초된 것들이 많지요.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 정의, 평등, 박애, 인권과 같이 보편적 가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하지 않고, 국익이 무엇이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조차 묻지 않습니다. 나아가 국익이 국가기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아니 “시민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데에 이토록 주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반공을 넘어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들이 말하는 국익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불온세력’, ‘종북세력’, ‘외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편에 침묵합니다. 그러나, ‘국익’과 ‘반공’은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익 때문에’ 누가 희생당하고 있는지 보아주시시오. 그것이 사회를 복음화하는 단초입니다.

■ 조영만 신부(메리놀병원 행정부원장) bapcho@hanmail.net

사랑의 치료약



노동력 상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매일 술로 지내던 아버지,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동생.

어쩔 수 없이 집안을 책임질 가장이 되어 밀린 방세와 공과금을 걱정하고, 친구들과 수다 나눌 여유 없이 책 한 권 사는 것마저도 사치처럼 여겨져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민이 씨. 2년 전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도움 되시니'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소개 후 민이 씨의 가정에 보내주셨던 여러분의 사랑으로 반가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밀린 방세와 공과금을 해결하였고,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도 건강이 좋아져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민이 씨는 마지막 학기까지 무사히 마치고 졸업해 병원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지난봄 민이 씨가 보내온 감사의 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

사를 드립니다.

한마음한몸을 통해 소외된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도움의 손길과 정성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사목국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이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안녕하세요? 후원자 여러분~ 감사의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취직하기 전까지 후원자 여러분께 도움받았던 민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벌써 드려야 하는데 이제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쉽지 않았지만 대학생활의 과정을 잘 끝낼 수 있었고 졸업 후 전공을 살려 OO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통해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략)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는 저에게 크나큰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의 저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아픈 이들에게 제가 받은 이 사랑이 치료약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와 저희 가족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딸아이와 이야기하다 보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어서 싸울까 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듯합니다. 이야기하자니 싸울 것 같고..., 하지 않자니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집이 뭔가 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원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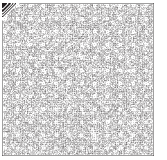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을 'understand' 라고 합니다. 'stand'는 '서다'라는 뜻이고, 'under'는 '아래'라는 뜻이니, '아래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뜻을 먼저 살피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래로 선다는 말이 마치 물구나무를 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구나무는 위아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상

대가 나를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뒤집어 상대방에 맞추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이 같아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용서하여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다름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오히려 고마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제가 오늘 제 아이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어, 그 아이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parvus@hanmail.net

성모 승천은 우리 희망의 완성



최승일
스테파노 신부

오늘은 하늘나라에 불러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을 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신 성모님을 경축하게 된 것은 너무도 뜻깊은 것입니다.

하느님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서면서도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맨 먼저 입으신 성모 승천 대축일이 조국의 해방일과 일치된 것은 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로움과 좌절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성모 승천 대축일에 우리는 성모님의 생애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셨는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 28)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모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셨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브리엘 천사의 통보를 받고 즉시에 순명을 하시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 겸손과 감사와 희망의 생활을 하시었고, 한마디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탁했던 신앙인의 온전한 생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마리아의 노래”는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 49) 이러한 성모님이 지상 생활이 끝난 다음 육신과 영혼이 다 함께 천상영광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의인들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천당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모 승천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가까이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 25, 34)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항상 은총이 충만한 상태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닮은 삶을 살으로써 하늘나라로 불러 올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들도 지상 생활이 끝난 다음 천상영광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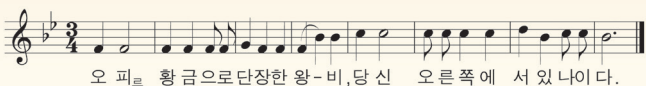
■ 동대신성당 주임

성모 승천 대축일

제1독서 요한묵시록 11, 19ㄱ; 12, 1~6ㄱㄴ. 10ㄱㄴㄷ

화답송 시편 45(44), 10, 11, 12, 16 (◎ 10ㄷㄹ)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4.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 는구나. ◎

제2독서 코린토 1서 15, 20~27ㄱ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루카 1, 39~56

영성체송 루카 1, 49, 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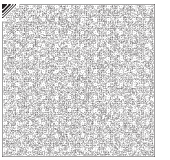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CUM 순례단 - 뜨거운 햇살아래 함께 걸으며, 주님을 찾는 순례단

'주님의 발걸음, 나의 발걸음' 이라는 주제로 열린 'CUM 순례단' 1기(102명 참가), 2기(95명 참가) 도보 성지순례가 지난 7월 29일(금)~31일(일), 8월 5일(금)~7일(일)에 각각 있었다. 순례단은 김범우순교자성지에서 감물생태학습관, 송백공소에서

감물생태학습관까지 걸으며,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기획한 청소년사목국 정철용 신부는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한 학생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 구

교구 혼인강좌 강사 초빙

지원자격 : 가톨릭신자와 심리학 전공자로서, 현재 전공분야 직업을 가진 분
이력서접수 : 9.11(일)까지, family@catb.kr
문의 : 629-8775

제3기 성모어머니학교

· 10.6~11.3 매주 목요일 10:00~15:00(5주 과정)
· 교구청 5층 대강당
대상 : 초중고 자녀를 둔 어머니
접수 : 8.16(화)~9.30(금), 선착순 49명
문의 : 010-2202-0470, 010-8822-1993

제7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8~11.5 매주 토요일 15:00~21:00(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대상 : 초중고 자녀를 둔 아버지
접수 : 8.16(화)~9.30(금), 선착순 49명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셔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 (055)374-8732~3(관리사무실)

본 당

남천성당 전기, 관리 보조 구함

대상 : 60세 미만(1명) /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 본당 사무실 / 문의 : 623-4528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및 월미사

· 8.16(화) 14:00 / 지도 :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 010-8879-2376(회장)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8.18(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강사 : 이정우(부산교구평형 6대 회장)
주제 : 평신도의 신앙체험담 / 문의 : 515-003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8.20(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462-1784

전례꽃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과 월미사

· 8.22(월) 10:3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5064-6512, 010-4554-1173

부산ME 소개모임

부산 : 8.15(월) 20:00 남천성당
김해 : 8.22(월) 20:00 연지성당
울산 : 수시(문의 : 010-4872-5051)
340차 ME 주말 : 8.19(금)~21(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465-1010
010-2837-8814, www.mekorea.or.kr/bs

지속적인성체조배회 기도학교 개강

· 8.30~11.15 매주 화 14:00~16:30 가톨릭센터 3층
· 8.31~11.16 매주 수 14:00~16:30 투현성당 성전
주제 : 성체조배와 삶의 복음화 / 수강료 : 6만원(12주)
강사 : 최재용 수사신부(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회)
대상 :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신자
문의 : 466-2290, 010-9331-2290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8.15(월) 전포성당 - 공휴일 휴회
· 8.18(목) 20:00 울산 복산성당
- 수요치유기도회
· 8.17(수) 11:00~16:00 / 중식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치유의밤)
· 8.19(금) 23:00 ~ 다음날 04:00
- 교구 성령목상회
제416차(일반) : 8.19(금) 11:00~21(일) 17:30
회비 : 10만원(교재비 별도 3,000원) / 당일 지참
10: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철야기도회(치유의밤)
· 8.18(목) 22:00~02: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 김완식 형제(수원교구)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부산가톨릭문인협회 제6회 문학캠프

주제 : 함께 걷는 글길

일시 / 8.20(토) 10:00~16:50 (파견미사 포함)
장소 / 신학원(부곡동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내)
지도 : 정은귀 교수(한국외국어대, 시론), 김상원 소설가, 정경수 수필가, 정재분 동시인
참가비 : 2만원 (입금 : 부산은행 101-2027-4934-03 가톨릭문인협회 하창식)
문의 : 010-6627-1070

주요 표지사진 공모

주제 : 해당 주일 전례(복음)를
मुख할 수 있는 사진

사진 규격 : 디지털 사진화일(JPG,RAW,TIF 등)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컬러 사진(출품수 제한 없음)

접수 내용 : 디지털 사진(첨부),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해당 전례력, 성경구절, 사진설명(장소, 일시, 작품사연 등)

응모 자격 : 부산교구 신자 누구나 / 접수 : 이메일(photo@catb.kr) ※ 교구 홈페이지(www.catholicusan.or.kr) 참조

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

서울공예사

법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0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

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전화 : 202-3011
 이 국 영(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동국자동차매매상사

신차, 중고차, 매매, 수출, 할부, 패차
상담. 010-3599-6420
현 중 삼(요셉)
부산 1단지 관여 제14호

제이스 이전개업

모든 연령층과 성별에 맞춘 각종 귀금속제품 판매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633-4549
현대백화점 맞은편 법일동 10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출구 50m

거제주단

주단, 포복,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점포: 632-0696, 집: 416-9168
후대폰: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6호로만곡 화장실

가톨릭여행사

9/20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395만원
9/21 이스라엘, 이탈리아 395만원
10/24 동유럽 4개국 발칸 13일 395만원
10/24 성모님 발원지 12일 375만원
(02)319-2533

제391차(자매) 꾸르실로
· 8.25(목)~28(일) / 마감 : 8.16(화)
문의 : (055)388-5734, 5733(팩스), 본당 간사

바다의 별 레지아 사무원 구함
자격 : 회계, PC(한글, 엑셀, PPT) 능숙
문의 : 462-1004, 010-9312-0821

부산가톨릭신학원 기도학교 2
<이나시오 영성과 기도수련>
· 8.27~9.10 매주 토요일 14:00~16:00(3회)
· 신학원(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내)
강사 : 신원식 신부(예수회 전 한국관구장)
수강료 : 3만원(재학생, 수도자 2만원)
입금 : 부산 030-13-001321-8 (재)천주교부산교구
대상 : 모든 신자 / 문의 : 464-7591

평신도선교사회 신학원 동문과 재학생의 만남
· 8.28(일) 14:00 · 신학원 / 회비 : 1만원
내용 : 특강 및 작은 만찬 그리고 사랑나눔
특강 :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문의 : 010-9340-7416, logos1981@daum.net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학년도 2학기 전문능력개발 및 자격증 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 노인돌이심리상담사, 노인체육지도사, 다도, 리본아트코디네이터, 미술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생활전그림아트(일반/전문가/최고지도자), 선물포장코디네이터,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영성심리상담사(심화), 전례와 사진예술
문화 · 교양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 서양화(유화), 시(詩)작법, 우쿨렐레 초급과정, 캘리그라피, 필라테스, 홀리스틱 힐링요가 접수 : 8.1(월)~8.31(수)
개강 : 9.5(월)부터 과정별 해당요일
문의 : 510-0952~3, edu.cup.ac.kr

교육 · 모집 · 기타

밀양 가르멜 후원회 미사
· 8.20(토) 11:00 · 남천성당 소성전
주례 : 이흥기 몬시뇰 / 문의 : (055)353-6597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8.19(금) 14:00~17:00 · 남천성당 소성전
주제 : 자비, 하느님의 마음
강사 : 김민철 신부 / 문의 : 010-3245-7900

분도 명상의 집 시편 영성 피정
· 8.26(금) 16:00~28(일) 13:00 / 피정비 : 12만원
준비물 : 성경, 미사책, 산책신발
지도 : 정학근 신부(새성경번역위원)
문의 : 582-4573, 010-6650-4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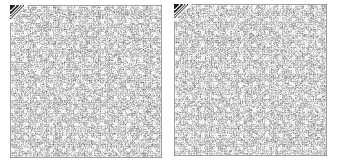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8.28(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8.24(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집전)

새로나는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
과목 :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 8.31~10.26 매주 수요일 13:00~17:00
· 바오로딸서원 / 교육비 : 12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 465-2173, 010-6375-2173(대청동 바오로딸)

자아성장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책읽기 10기 모집
· 9.1(목)부터 매주 목 14:30(10회) · 바오로딸 서원
대상 : 40~50대 주부(선착순 10명) / 회비 : 12만원
문의 : 465-2173, 010-6375-2173(대청동 바오로딸)

오이디푸스 강좌
사랑이 탄생하는 2단계(부정적 정서의 대물림받기를 위한 대안) / 대상 : 워니컷 수강자
· 9.5~11.14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해외선교후원금 마련 바자회
· 9.3(토) 10:00~18:00 / 문의 : 581-3103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5차)
· 9.3(토)~4(일) · 영성의 집
문의 : (055)332-7004, 010-3847-2796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 8.22(월)~23(화), 29(일), 31(수) 18:00~22:00
·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502호
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20명(선착순)
교육비 : 전액 무료 / 신청 : 부산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www.cup.ac.kr) 공지사항-행사/모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gbabydan@cup.ac.kr 제출
마감 : 8.19(금) 17:00 / 문의 : 510-0948

병자들을 위한 치유세미나
· 9.17(토) 11:00~18(일) 16:00
· 음성꽃동네사랑의 영성원 / 회비 : 5만원
대상 :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내용 : 미사, 강의, 면담, 교해성사, 치유예절 및 안수
문의 : 010-5490-5345 / 어린이 동반금지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를 위한 교육
· 9.29(목)~10.4(화) · 서울 골목반 선교센터
대상 : 해외선교와 교포사목을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
문의 : (02)953-0613(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9.26(월)~10.8(토) · 발간순례 / 395만원
· 10.24(화)~11.5(토) · 서유럽, 스페인 로마, 아씨시, 수비아고, 피렌체, 토리노, 루르드, 오비에토, 산티아고, 산타레, 파티마 국내선 포함, 독일항공 / 문의 : 010-3837-643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천주의성요한의로봉사수도회	8.20(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엠포신마리아성심수녀회	8.21(일) 13:30	본원	010-2835-4858

<p>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어 교육센터 개설</p> <p>■ 개 강 9월 7일(수) ■ 수업일 주 5일(월~금) 4시간/일 ■ 대 상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등 ■ 문 의 510-0862~4(한국어교육센터), kwak@cup.ac.kr</p>	<p>부산성모병원</p> <p>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p> <p>간병비 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전문간호인력 24시간 간호 · 간병 서비스 제공 문의 : 933-7114(기획실) / www.bsm.or.kr</p> <p>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p>	<p>가톨릭선원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p> <p>가톨릭센터 “에코(ECHO)” 다목적 공간 (복음의 메아리, 믿음의 반향, 마음의 울림) 합주·연습실, 녹음실, 자료실의 다목적 공간 오픈! 많은 관심과 사용문의 바랍니다</p> <p>사용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p>
		<p>‘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p>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선비목집 보쌈정식 개시(1인분 17,000 2인 이상) 보쌈 수육, 명태회부침, 메밀전병 연어샐러드, 코다리 강정, 목살러드 식사는 목재, 명계 비빔밥, 새끼 비빔밥 중 택1 * 목 요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원</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입소 상담 원돌 실버타운 758-6231 원돌 요양센터 751-0561 로사사회봉사회 www.rosa.or.kr 대표이사 맹진학(라파엘) 신부</p>	<p>라이프치과의원 치의학 박사. 최 계 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원데이 임플란트 치아 살리기 치료 해운대 31번 중점 맞은편 743-3334</p>
<p>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정 역 바른병원 3층</p>	<p>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p>	<p>라파엘 여행사 9/20 이태리 일주 (10일 399만원) 10/31 발칸, 성모님 발현지 (13일 379만원) 성지순례 (02)778-8565</p>	<p>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햇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 의협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3층</p>	<p>내일N성형외과 눈, 코, 유폴, 가슴,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레이저 최 수 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부수대로 9(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p>